



메밀면·건면 등
여름면 라인업
대거 공개
L1



Life

LG올레드
글로벌 호평
화질 경쟁력 입증
L2



정통성 지키고, 현지 입맛 맞춰... 세계에 녹아든 한식문화

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

K-푸드, 글로벌 식문화 주류로
김치·두부 사상 최대 성공 이끌어
한국 정체성-현지화 조화 '비결'
지속가능한 웰니스로 미래 준비
영역 확장, 모방제품 문제 '과제'

K-푸드가 글로벌 식문화의 주류로
안착한 비결은 한국 고유의 '정체성 유
지'와 철저한 '현지화'의 조화에 있는 것
으로 나타났다.

메트로신문·메트로경제가 17일 서울
중구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'2026 푸디
노베이션 포럼'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
은 K-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 집
권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한국 고유의
정체성을 유지하되 맛과 포맷은 현지 문
화에 맞추는 정교한 '글로벌 2.0 전략'을
제시했다.

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K-푸드의 대
표 주자인 '김치'와 '두부'다. 국
내 식품 기업들은 단일 카테고리
에 대한 선택과 집중, 그리고 현
지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드
는 컬러 마케팅으로 사상 최대
실적을 경신하고 있다.

실제로 대상주식회사의
사내독립기업(CIC) 글로벌
별김치마케팅팀이 이끄는

브랜드 '종가(JONGGA)'는 현재 국산
김치 전체 수출액의 약 60%를 차지하며
글로벌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. 신선 발
유식품의 한계인 짧은 유통기한과 가스
팽창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, 미
주유럽 등 전 세계 14개국 900개 코스
트코 점포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.
특히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동시에
비건 당근 케이크 김치, 고수 김치 등 과
격적인 현지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
글로벌 2030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
있다.

풀무원은 올해 미국의 두부 현지 매
출이 한국 내 매출을 사상 처음으로 앞
지르는 이정표를 세웠다. 물컹한 식감
을 꺼리는 미국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
해 물기를 빼고 단단하게 만든 '하이프
로틴 두부'를 개발, 샐러드 토핑이나 오
븐 구이용 웰니스 식품으로 포지셔닝
한 결과다.

풀무원의 단일 두부 카테고리 글로벌
매출은 현재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

있으며, 최근에는 60가지 채소를 고품
블록화한 글로벌 비빔밥을 선보이는 등
지속 가능한 식단(Plant-based) 시장
을 선도하고 있다.

실제 방한 외국인들의 소비 데이터에
서도 K-푸드의 위상 변화가 입증된다.
맛집 플랫폼 '식신'의 빅데이터 분석
에 따르면, 방한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
하는 2030 세대들은 패키지 여행 대신
성수, 흥대 등 골목길 노포를 찾아 'K-
바비큐(삼겹살·한우)'와 국밥류를 즐기
는 생활 밀착형 미식 관광 플로우를 보
이고 있다.

이처럼 K-푸드가 농식품 수출 10년
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137억
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
만,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산업으로 안착
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.

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특정 국가
의존도 탈피와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는
물론, 최근 해외 현지에서 급증하고 있
는 '모방 한식당' 및 현지 업체의 '모방

한식 제품' 난립으로 인한 정통성 훼손
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.

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
이 K-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
게 견인할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망이
제시됐다.

안병익 식신 대표는 자사의 맛집 플
랫폼 데이터와 위치기반 빅데이터를
바탕으로 방한 외국인의 미식 트렌드
를 정밀 분석하면서 한식의 미식 레벨
을 하이엔드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
언했다.

끝으로 연윤열 인천푸드테크협회 사
무총장은 단순 가공식품 수출을 넘어
AI 기반의 스마트 콜드체인 구축, 이물
질 차단을 위한 AI 비주얼 검사 등 첨단
푸드테크 기술을 융합해 K-푸드의
제조 및 공급망 전체를 지능화·표준화
하는 'K-푸드 2.0'으로의 체
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
했다.

/신원선 기자

tree6834@metroseoul.co.kr



metr



현지화로 쓴 K-푸드 신화... 웰니스·지속가능성으로 미래 공략

기조강연

윤명량

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

정찬기

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 팀장

풀무원, 美 식문화 맞춰 두부시장 점령
물컹한 식감 줄이고 단백질 함량 높여
지속가능 식단으로 건강한 미래 앞장



'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'에서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이 '글로벌 K푸드 트
렌드와 지속 가능 식품의 미래'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.



포럼에서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 팀장이 '종가,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'를 주제로
강연을 하고 있다.

K-푸드의 글로벌 성공 신화를 만든 기
업들은 성공의 공통 공식으로 '현지화'를
꼽았다. 글로벌 한류 열풍과 웰니스 트랜
드로 한식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, 각
국가의 문화와 음식 트렌드를 면밀히 분
석한 전략이 주요했던 결과다.

메트로신문·메트로경제가 지난 17일
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
'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'에 참석한 K-
푸드 선도 기업들은 세계 식탁을 사로잡
을 수 있었던 성공 전략들을 공유했다.

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
장(부사장)은 '글로벌 K-Food 트렌드와
지속가능 식품의 미래'를 주제로 한 강연
을 통해 미국 두부 시장을 점령한 '하이
프로틴 두부(High Protein Tofu)'의 사
례를 소개했다. 풀무원은 미국인들이 두
부의 물컹한 식감을 싫어한다는 것에 주

목해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물기를 뺀 단
단한 질감의 하이 프로틴 두부로 시장을
공략했다. 이 제품은 미국 식문화에 빠르
게 스며들었고, 미국 두부 매출은 연간 1
조원을 훌쩍 넘기며 한국을 앞지르는 결
과를 낳았다.

윤명량 부사장은 "올해 미국 매출이 1
조4000억원 규모로, 한국 두부 매출을 넘
어서 예정이다"라며 "단일 카테고리 식품
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넘기는 건 국내 몇
개 없는 성공 사례이며, 이는 국가에 맞는
식문화를 잘 분석한 결과"라고 설명했다.

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 팀장은
'종가,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' 주
제의 강연을 통해 현지화 전략으로 '무유

정법(無有定法)'을 꼽았다. 정해진 법은
없고,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이치가 다르다
는 뜻의 사자성어다.

대상, 세계 90개국에 포장김치 수출
주요도시서 김치 팝업·페스티벌 열어
웰니스 트렌드... 발효식품 주목받을 것

대상은 현재 '종가(JONGGA)' 브랜드
를 통해 포장 김치를 전 세계 90개국에 수
출하고 있다. 지난해 한국의 전체 김치 수
출액(약 1억6000만 달러) 가운데 종가 김
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%에 달한다.

정찬기 팀장은 "농심 신라면이 1조를
파는데 37년이 걸렸지만, 삼양식품이 불

닭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12년
만에 가능했다"며 "유튜브와 인스타그램
등의 SNS 채널을 통해 글로벌 확장 속도
는 훨씬 빨라지고 있다"고 강조했다.

종가는 해초 김치, 고수 김치 등 다양한
제품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주요
도시에서 팝업스토어, 김치 페스티벌 등
다양한 체험형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며
전 세계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.

이제 기업들은 K-푸드의 미래를 준비
하고 있다. 시간이 갈수록 자연적이고 건
강한 한식의 식단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
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 대상과 풀무원
역시 웰니스·지속가능의 식문화 트렌드로
'K-푸드 3.0 시대'에 대비하고 있다.

정찬기 팀장은 "전 세계적으로 웰니스
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발효식품, 김치
를 비롯한 한식의 건강한 먹거리가 더 큰
주목을 받을 수 있다"라며 "한국의 경제적
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, 글로벌 콜드체
인 이 업그레이드 되면 K-푸드 역시 반도
체 만큼 엄청난 산업이 될 수 있다"고 내
다봤다.

윤명량 부사장은 "앞으로 10년 후 어떤
음식으로 세계에서 한식을 알리느냐에 대
한 고민을 해야 한다"며 "10년 뒤 미래에
도 K-푸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음식
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풀무원이 앞장
서서 지속가능한 식단을 알리나가겠다"고
말했다.

/이세경 기자 seilee@

메트로 한줄뉴스



▲박지성 "멕시코전 '키 맨'은 이강인... 압박 풀어
줄 선수"
▲패배 잊은 멕시코, 한국전 대비 최종 훈련... "한
국, 훌륭한 상대" /사진 뉴스시스

▲통계 업체의 예상... 한국, 멕시코전 승리 확률
24.8%
▲롯데, 아시아쿼터 교체 단행... 교야마와 작별하
고 이이무라 영입

▲여서정·허웅 등 기계체조 대표팀, 'AG 전초전'
아시아선수권 출격
▲가나 첫 세계유산 '성체' 기후변화 대응 한국이
돕는다